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만 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외상적 기억의 상징적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노 미 진

외상적 기억의 상징적 이미지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만 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노 미 진

인 준 서

노미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예술은 작가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으며 예술가의 내면의식을 통하여 고유한 표현방법이나 언어로써 형상화 되고 표현되어져 왔다. 이러한 감정의 세계를 예술적 형식을 통해 더욱 구체적, 개별화된 형태의 자기표현으로서 예술작품을 표출한다. 특히 예술 작품은 작가 자신이 경험 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고를 반영 한 것으로써 이런 특별한 사고가 과거의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 일 때 그 특이성은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경험은 내면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중에서도 유년기의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은 무의식에 장기기억으로 남아 트라우마로 발현된다. 프로이트가 심리적 외상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 개념은 장기간 개인을 속박하는 강렬한 기억 혹은 체험을 뜻하며,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특정한 순간이나 기억이 고착되어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본인은 이러한 연관 요소 중에서 예술가들이 유년시절의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로 인해 손상된 감정과 억압된 상태의 내면을 창작활동이라는 적극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승화시킴으로써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고 지난 시간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 역시 유년기의 기억과 사건의 단상들이 트라우마로 발전되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이 본인의 작품 창작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유년 시절의 외상적 기억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의 표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는 본

인의 불안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작활동을 통해 트라우마적 사건을 기억해내는 과정은 반복적인 선긋기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 내면에 억압되어있던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이 해소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복적인 선긋기의 행위는 과거의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며, 잠재의식에 내재되어있는 기억을 표출함으로써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 받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된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어떠한 과정으로 승화되고 치유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유년기의 기억과 트라우마	3
2) 트라우마의 예술적 승화와 치유	6
2. 작품 표현 방법	15
1) 불안과 공포의 상징	15
2) 심리적 색채	17
3) 심리적 도구로써 매체	19
4) 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면치유	21
3. 작품 분석	23
III. 결론	41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火宅街, 72.7×90.9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23
【작품2】 火宅街, 91×116.8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25
【작품3】 火林, 107×400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27
【작품4】 火焰, 60.6×72.7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29
【작품5】 陰路, 70×150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31
【작품6】 旅程, 60.6×72.7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33
【작품7】 旅程, 72.7×90.9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35
【작품8】 旅程, 72.7×90.9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37
【작품9】 門, 72.7×60.6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39

I. 서론

본인에게 작업은 유년기 시절의 기억으로 느끼게 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불안과 공포의 심리가 작업의 동기가 되기도 하며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유년기 시절의 기억을 심리적으로 표현한 작업인 2013년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기억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후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현재로의 진전에 있는 것이며 현재라고 불리는 심리적 상태는 직접적인 과거의 지각인 동시에 직접적인 미래의 결정이다. 결국 인간은 삶 속에서 시간의 경험을 통해 현재에 이르며 과거의 기억을 통해 경험을 구체화시켜 인식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작업에서 의미하는 기억은 자아 주체의 형성을 위한 근거이자 관객과의 소통의 도구이며 동시에 기억속의 감정을 재현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의 작품은 유년기의 외상적 기억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반복적 선긋기의 행위로 표출하며 이미지화 시킨다. 이러한 작품의 발단은 본인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린 시절의 불안한 기억들을 표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측면이 작품으로 재 표현 되었다.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대면하고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스스로 얻으며 내면에 집중하게 되었고, 억압된 내적 문제에 접근하여 내재되어있는 불안과 공포의 감정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창작활동을 통해 승화되는 것과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의 작품 안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론 1장에서 작업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유년기 시절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기억과 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트라우마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예술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를 얻기 위하여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를 작업의 동인이나 주제로 다루는 작가들 중에서 루이스 부르주아와 쿠사마 야요이의 작업세계를 통해 작가들이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2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측면으로 본인의 유년시절의 외상적 기억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상징적 이미지와 이러한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심리적 요소로 작용하는 색채가 본인의 작품에서 어떠한 시각적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분석하고, 펜이라는 매체의 사용이 본인의 즉각적인 감정의 표출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과 작품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반복적인 선긋기의 조형행위의 과정은 본인 내면의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표출하고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고자하는 심리기저로서 반영되어지는 것을 작품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배경

1) 유년기의 기억과 트라우마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억은 인간이 외부세계로부터 자극을 받아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사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기억 체계에 저장시키며, 발생된 감정과 정서를 회상, 재인식, 재구성하는 현상이다. 또한 기억은 어떤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건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까지 습득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기억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그 순간의 감각과 감성이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실존하는 객관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주관적인 이미지로 저장되게 된다. 즉, 그 이미지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평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접하는 개개인에게는 주관적인 의미로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소멸되기도 하고 다른 외부 자극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변형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억은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순간적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을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 ~ 1939)¹⁾는

1)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1856년 체코의 유태계 가정에서

의식 중의 한 부분으로 억압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곳으로 보았다. 그의 억압이론에 따르면, 어떤 경험은 생각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마음이 기억을 저장소로 내려 보내는 것인데, 이때 기억의 일부는 의식수준에서 현실검증을 거쳐 정보화 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부분은 무의식화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과정이 고통을 잊기 위해 기억을 일시적으로 억압하게 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기억은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증상을 트라우마(trauma)로 설명한다.²⁾

오늘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심리적 외상(psychic trauma)을 뜻하며, 외과적인 외상개념을 정신영역에 비유적으로 전용한 개념으로써 일종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심리적 외상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 개념은 장기간 개인을 속박하는 강렬한 기억 혹은 체험을 뜻하며,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특정한 순간이나 기억이 고착되어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증상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현되는데, 그 증상들은 처음에는 반복되는 회상과 악몽을 꾸게 되고, 그 후 생리적인 재 반응을 보이며, 지속적인 회피와 마비, 그리고 타자로부터 분리되는 느낌, 분노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신경증으로 전이되어 강박증, 우울증, 히스

서 출생. 오스트리아의 생리학자, 정신병리학자, 정신분석의 창시자. 최면치료 중인 환자의 시사(示唆)에 의해 최면대신에 자유연상법을 쓰게 되었으며, 치료기술로서의 정신분석을 확립했다. 1990년 <꿈의 해석>을 통하여 ‘무의식’이라는 인간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꿈, 착각, 해학과 같은 정상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심리학을 확립하였다.

2) 리처드 윌하임, 「프로이트」, 이종인 역, 시공사, 1999, p.71참조.

테리, 노이로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³⁾ 즉, 트라우마는 개인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억압되어 잠재의식 속에 장기기억으로 남아 있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는 과정에서 주체의 정신을 자극해 심리적 증상들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본인 또한 성인이 되고나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유년시절 잠재의식 속에 있던 부정적인 기억이 의식을 찌르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반복되는 회상과 악몽, 분노, 내적갈등을 겪게 되었다. 즉, 본인에게 있어서 유년시절에 억압되어있던 부정적인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년시절은 누구나 거치는 것으로 앞으로 살아갈 한 사람의 습관과 정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인 역시 유년시절의 경험과 기억에서 형성된 수많은 요소에 의해 현재의 삶이 규정되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프로이트는 개인의 정신구조와 성격유형 및 정신질환의 원인들이 대부분 유년기에 형성되는 것임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유년기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원초적인 정신작용의 특징 및 정신질환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보고 있다. 그는 유년기부터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며 그 자신도 의미를 잘 모르는 기억의 부수물의 배후에는, 대개 그의 심적 발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에 관한 매우 귀중한 증거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⁴⁾ 이렇듯 유년기에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무의식속에 장기기억으로 남아 개인의 정서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역, 푸른숲, 1997, p.62참조.

4)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예술미학 분석」, 김종영 역, 글벗사, 1995, pp.53-55.

개인의 정신구조, 깊은 상처, 불안, 갈등, 죄책감, 방어기제 등이 이미 유년기에 형성된다는 것은 자유연상 과정에서 내담자들이 토로하는 언어로도 검증된다.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부터 줄곧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라는 강한 정서적 토로는, 무의식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유년기의 체험들에 대한 세세한 정신분석 과정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유년기의 욕망과 상처가 이토록 평생에 걸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그것이 억압된 채로 무의식에서 영구적으로 역동하기 때문이다.⁵⁾ 이처럼 정신분석학에서 유년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어느 시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나의 무의식 속에서 역동하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관점, 경험의 흔적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유년기는 과거 시점인 동시에 현재 시점이며, 현재 본인의 정신, 성격, 정서를 구성하는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트라우마의 예술적 승화와 치유

예술활동과 삶에 있어서 표면이나 외부의 환경적 요소보다 중요한 것은 내재적 경험과 기억들,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다. 특히 예술 작품은 작가 자신이 경험 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고를 반영 한 것으로써 이런 특별한 사고가 과거의 관련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 일 때 그 특이성은 더욱 가중된다. 본인은 이러한 연관 요소 중에서 예술가들이 유년시절의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로 인해 손상된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에 주목

5)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민음사, 2003, p.139.

하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유년시절의 기억은 무의식적 동기와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의 심리상태를 대변한다. 특히 유년기의 억압된 기억에서 생성된 불안은 직접적인 에너지의 분출이 가능하지 않거나 금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격적 욕구를 직접 방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견디기 힘든 욕구 불만이 생기는데, 이 본능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위라고 한다. 이런 대안적 활동이 예술이라는 방법론으로 ‘승화(sublimation)’⁶⁾됨으로써 억압된 무의식을 인도주의적이며 문화적이거나 예술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에 관해 프로이트는 예술가의 창조적 욕구는 신경증 환자가 갖고 있는 증세와는 다르지 않지만 욕망의 표출 방식에 있어 억압된 상태의 내면을 창작활동이라는 적극적인 자기 인식을 통해 승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치유로서의 미술을 바라본 미술 치료사 크레이머(E. Kramer)는 승화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라는 말보다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행동’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말은 승화를 통해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에너지가 지적이고 인도주의적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추구로 보다 높은 문화적 목표로써 전환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이란 억압된 기억이 인식되는 순간을 회피하지 않고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승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예술에서 표현이라고 함은 내적 존재의 표출 작용이며, 여기서 내적 존재라고 함은 우리의 인식에서 대상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표출될 때는 그 자체로 자유로운 것이지만 여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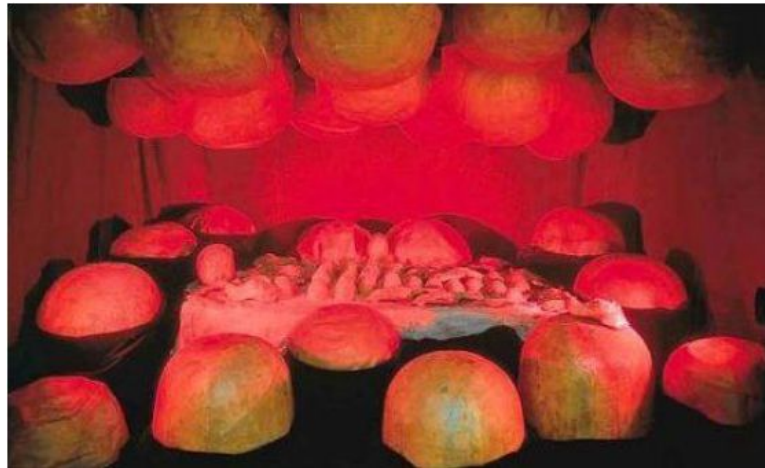
6) 승화 - 정신분석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프로이트가 언급한 자아의 방어기제 중 하나이다. 방어기제는 인간이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특성과 관계한다.

는 ‘자기목적성’이라는 개념이 따라와야 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술 활동은 감정표출의 일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출된 모든 것이 예술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표출작용이 내적 감성을 자유로이 표출하고 이것을 더욱 고양함으로서 자기의 심적 상태를 타인에게 투사될 때에만 예술적 활동으로서 창조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⁷⁾ 이것은 예술이 단순히 대상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 특히 감정이나 정서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는 유년기의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를 작업의 동기나 주제로 다루고 감정표출로 볼 수 있는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키는 여러 작가들 중에서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 ~ 2010)와 쿠사마 야요이(Yayoi-Kusama, 1929 ~)의 예술세계를 살펴보겠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일생동안 창작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화풍이나 시대적 유행을 추종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그 때의 기억과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외상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으며, 유년시절의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오는 감정들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됨을 말했다. 부르주아는 유년기에 아버지의 외도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어머니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언니와 가학적인 남동생 등의 가족 구성으로 평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그중 트라우마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자신도 시인하는 것으로 유년기에 경험했던 아버지와 가정교사인 세이디의 불륜과 그로 인한 적개심, 불륜사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원망의 감정들인데,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정신

7) 볼프 하르트 행크만, 「미학사전」, 김수진 역, 도서출판 애경, 1999, p.352.

적 외상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후에 그녀는 <아버지의 파괴 The Destruction of the Father>(도판 1)이라는 설치작업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파멸시키고 싶은 욕망, 그리고 상처로 인한 불안과 공포 등 유년기의 트라우마를 드러냈다.



(도판 1)아버지의 파괴, The Destruction of the Father, 1974

(도판 1)의 작업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화와 관련되어진다. 그녀의 아버지는 저녁식사를 갖는 자리에서 항상 자신인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곤 하였는데, 이것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가부장적 위협과 억압으로 다가온 것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날 저녁식사 테이블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를 과장해서 크게 보이려고 했다. 그가 자기를 더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공포스런 긴장감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를 붙잡았다. 내 오빠, 내 언니, 어머니가 말이다. 우리 셋은 그를 잡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각각 그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겼다. 그리곤 우리는 그의 사지를 그렇게 잡아먹어 버렸다. 우리는 그를 물리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잡아먹어버렸다. 그렇게 끝이 났다. 이것은 하나의 환상이다. 하지만 때론 환상이 더 실제적인 것이 된다..... 아버지의 파괴와 함께 하고 있는 회상은 강하다. 그리고 이 회상은 그렇게도 많은 작품으로 되었다.” 8)

그녀의 환상내지는 회상을 나타내는 이 글에는 부르주아의 작품 중 (도판 1)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작품이 아버지와 세이디, 그리고 어머니에 이르는 관계가 계속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작품이 1974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녀의 유년시절이 한참 전에 지나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부르주아 안에 이와 같은 환상이 있었고 또한 환상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파괴>라는 작품 속에서 부르주아는 물어뜯음으로써 언어에 대한 공격을 구축한다. 식탁위에 아버지의 육체를 집어던져 사지를 갈가리 찢는 상상은 유아의 본능적 충동의 파괴적인 힘을 통하여 수직의 권위적인 축에서 수평의 축 위에 아버지의 위치를 재 매김한다.⁹⁾ 이것은 (도판 1)에서 보여 지는 오브제들과 설치의 구조적 방식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부르주아의 작업에서 보여 지는 오브제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게 하는 대상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상과 화해하고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¹⁰⁾ 이 작품의 주된 목적은 그녀가 아래에 언급한 것처럼 두려움(공포)으로부터의 탈출로 볼 수 있다.

8) Louise Bourgeois, "Statements from an Interview with Donald Kuspit", p.158, 정지아, <트라우마와 자기치유에 관한연구>에서 재인용, p.46.

9) 김연정, 「미술사와 근현대」, 성신여대 출판부, 2003, p.250.

10) 유로 현대미술 연구회 지음, 「현대미술 속으로」, 예경, 2002, pp.19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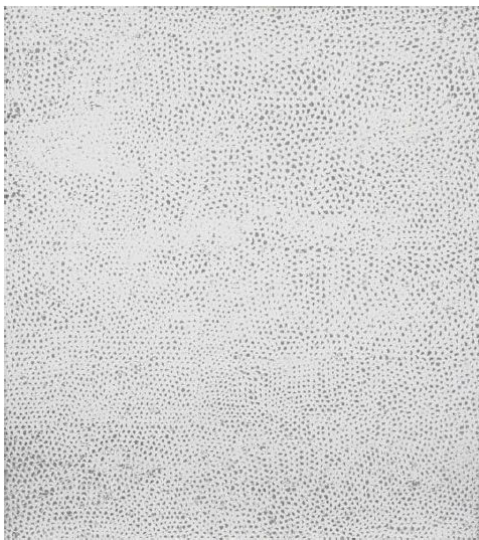
“아버지의 파괴의 목적은 공포를 극복하고, 그것을 퇴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나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된 것 같아진다. 나는 치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엑소시즘은 그래도 치료와 관계된 모험이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때문이다.”¹¹⁾

결국 그녀의 어린 시절의 상처는 가족에 의한 것이었으며, 가족의 재해석과 재창조는 부르주아에게 있어 외상을 치유한 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술은 정신적 온전함을 보증하는 것이다. 예술은 정신적 외상의 경험이거나 재경험이다.” 라는 부르주아의 말은 자신의 예술이 정신적 외상을 나타내고 창작활동이 심리적 상처의 고통을 완화하고 승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주아는 유년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며 내적 감정을 투사, 승화시킴으로써 트라우마와 대면하고, 점차 자기 치유적 경험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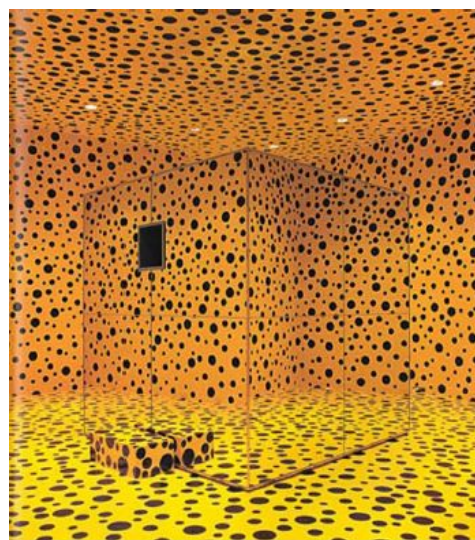
쿠사마 야요이 또한 루이스 부르주아와 마찬가지로 억압된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가혹한 양육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강박증과 환각증세를 띠는 정신질환으로 남게 되었다. 그녀의 작업표현 방식은 단순한 도트의 패턴에서부터 반복, 증식, 확산을 통해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동시에 강박관념으로 인한 공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패턴들은 쿠사마가 10살 때부터 보기 시작한 환영 이미지와 연관되며, 그녀의 작업에 있어 형식 언어인 무한망과 점무늬의 기원 그리고 그녀의 강박관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1) 정지아, 같은 글에서 재인용, p.48.

“어느 날, 테이블에 붉은 꽃무늬 패턴의 테이블 천을 보고 있었다. 내가 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도, 그 똑같은 붉은 꽃무늬 패턴이 어디에나, 창 유리와 기둥에 까지도 보였다. 그 방, 내 몸, 전 세계가 붉은 꽃무늬 패턴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내 자신은 사라져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끝없는 시간과 절대적 공간의 무한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었고 현실이었다. 나는 몹시 놀랐었다. 만약 내가 거기에서 빠져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 붉은 꽃의 마력으로 휩싸여 버렸을 테고 내 인생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12)



(도판 2) Infinity nets, 1929



(도판 3) Mirror Room(Pumkin), 1991

그녀는 갑자기 덮친 일련의 환각경험으로 인해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무늬들을 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환각과 환영, 강박증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

12) Yayoi Kusama, "struggle and Wandering of My Soul", Geijutsu, 1975: Vincent Pecoil, p.22. 김애림, <야요이 쿠사마에 있어 자기소멸 이미지의 해석>에서 재인용, p.46.

은 그녀의 작업을 이끌게 하는 창조적 원천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의 강박관념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남근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형형색색의 도트무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자신의 강박관념과 직면하면서 그것의 증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였다. 이것은 그녀의 심리적 표상으로써 그녀의 작품에서 상징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그녀의 <Infinity Net>(도판 2)과 <Mirror Room>(도판 3)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무한망’과 ‘점무늬’들이 바로 그 예로 볼 수 있다.

그녀가 압도당했던 끝없이 반복되어 나타났던 환각들과 공포로 다가왔던 강박관념에 직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한망’과 ‘점무늬’의 예술로 승화시킨 것인데, 이렇게 무수히 반복되는 점들은 어린 시절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주체를 기표의 반복적 작업을 통해 재확인하고 직접적인 표출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질환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승화의 과정을 이루어 내려고 하였다. 이처럼 루이스 부르주아와 쿠사마 야요이는 고통스러웠던 유년기의 외상적 기억을 창작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적인 대상으로 느껴졌던 감정의 부분들은 창작활동을 통해 관찰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억압되고 있는 동안은 언제 폭발하여 의식을 침범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강한 긴장상태가 계속되지만, 창작자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불안감에 맞서 그림속의 표현이라는 상징적 방법으로 표출하면 그 불안은 다룰 수 있는 현실세계 속의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모습을 바꾼다.¹³⁾ 여기서 시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13) 잉그리트 리델,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정여주 역, 학지사, pp.42-45참조.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통제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을 가시화함으로써 내면의 존재하던 억압적인 요소들을 외부로 표출시키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작품 표현 방법

1) 불안과 공포의 상징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행적을 기억하고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집단적인 기억이 한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적 토대를 이룬다면, 개인의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에 토대가 된다. 앞 장에서 언급 했듯이 인간의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도 유년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무의식에 남아 개인의 정신구조와 성격유형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본인에게도 유년시절에 겪은 사건들에 의한 충격이 무의식에 내재되어 불안의 정서가 본인의 내면에 자리 잡았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은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포와 불안은 슬픔, 분노, 기쁨등과 같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중 하나이며, 의식적으로 인지된 특수한 위협에 대한 회피정서로 이해된다. 공포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외부의 자극인 장소, 사람, 상황, 대상물이 있으며, 그로 인해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즉, 공포는 외부의 특수한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반응이며 위협의 대상이 분명한 것을 말한다.¹⁴⁾ 이에 반해 불안은 표면적으로 모호하고 막연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구체적 자극이 없이 예견 혹은 상상으로 나타나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대상의 유무에 따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포를 일으킨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2차적 정서반응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이 공포를 경험하고

14) 정명화, 정서와 교육, 학지사, 2005, pp.208-209참조.

그에 따른 기억이 일상의 수면위로 올라와 불안이라는 정서적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경험과 그에 따른 불안의 정서는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본인은 유년시절의 외상적 기억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내적 고통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호하고 비가시적인 감정인 공포와 불안은 작품 내에서 구체적 형상을 띄며 관념적 표현으로 상징화 된다. 여기서 상징이란 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떤 불분명한 것, 알려지지 않은 것, 숨겨져 있는 것을 간접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수단이며, 이성적 인식을 초월한 이면의 의미를 전달하고자하는 도구인 것이다.¹⁵⁾ 즉, 사물을 원형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관념들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 안에서 공포의 상징적 의미로 나타난 이미지는 자신의 삶과 존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형상화 된다. 그림에 등장하는 집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식처의 개념이 아닌 자아를 대변하는 장소이자 유년시절의 부정적인 기억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해석된다. 이 장소는 두려움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중 하나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신호로 작용하며, 과거의 기억을 자극시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또한 작품에서 보여 지는 집은 불길에 휩싸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졌는데, 불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태우면서 확장하는 공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불의 이미지는 이러한 감정들을 거부하고 싶은 분노와 파괴의 이미지이며, 타오르는 불은 외향적 욕구의 분출인 것이다. 또한 본인의 내면의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은 불타는 숲의 이미지로도 형상화 되고 있다. 숲의 이미지에서 표현된 나무는 메마른 느낌으로 죽어가는 고목과 같은 느낌인데, 이것은 본인의 내면의 불안의식을 표현 하고

15) 칼융, 이미지의 상징, 송태현 역, 라이트하우스, 2007, p.107

자 한 것이며 불에 타고 있는 숲은 억압된 욕망의 절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본인의 작업에서 불타는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의 이미지는 이러한 내면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표현한 것으로써 본인의 작품에서 사용되어진 동물의 이미지는 인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유년기의 트라우마적 기억으로부터 생성된 정체불명의 불안의식은 다양한 형태와 대상으로 계속 변형되어 상징적 표상이 되는 이미지로 화면에 자리 잡고 있다.

2) 심리적 색채

색채는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며 생리적인 현상과 함께 감각을 통한 하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이다.¹⁶⁾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자연 대상을 재현하는 목적 뿐 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받은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며, 어떤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전달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감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색채는 형태보다 더욱 표현적이고 감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형태로 모두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는데 더욱 유리하다. 이렇듯 색채는 인간의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작가와 감상자 모두를 아울러 정서적 부분을 자극한다. 즉 색채를 통하여 그 자체의 자율적 표현이 가능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면이나 공간 위에 예술가의 내적, 정신적 감정을 대신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색의

16) 김덕택, 송종율, 이선아, 전현춘 공동 저, 「색채학」, 일진사, 2007, p.126

선택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색이 지닌 감성적, 상징적 의미가 관여하게 되며, 객관적 인식의 대상뿐만 아니라 감정, 심리를 드러내는 조형적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감정과 내적 세계를 전달하는 표현 수단으로서의 색채는 본인의 불안한 심리를 작품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인 작업에서 색채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의식과 감정을 표출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어졌으며, 즉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형상과 흔적의 사이를 오가며 내적 상태에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색채의 사용은 소수의 단계로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색면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고 색면의 경계들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것은 감정적 기억에 부합하는 색을 칠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대부분 붉은색을 띄는데, 심리학에서는 빨강색을 자극적인 색 불안과 긴장을 증가시키는 색으로 본다. 또한 심리요법에서 빨강색은 환자의 내면의 심리를 외부로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듯 인간의 내부의 심리를 자극하여 외부로 발산하도록 하는 빨강색은 본인의 작품에서 트라우마의 공포와 불안의 심리를 표출하는 색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의미로 검은색은 심리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검은색은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비로운 색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흔히 무거움, 두려움, 죽음, 공포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용된 붉은색과 검은색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표현되었으며, 배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붉은색과 검은색은 심리적 상황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은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금색을 사용함으로써 내면의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을

대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적갈등이 치유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색채는 정서적 경험의 표현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색채는 조형요소 가운데 가장 감각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체험을 표현해 줄 수 있다.¹⁷⁾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특수한 인상을 전달해 주는 언어와도 같은 역할을 하며 회화에서 직관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본인에게 있어서 색채는 본인의 유년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대변해 주며,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관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심리적 도구로써의 매체

본인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매체는 유성매직(permanent maker), 페인트 마카(Paint maker) 등으로 유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펜을 사용하였다. 펜은 독특한 성질인 섬세한 선으로 운동감과 리듬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펜 선은 터치에 의한 하나하나의 꺾임과 선의 강약이나 길이에 따라 톤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유성매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잉크가 소멸되며 점차 색의 강도가 약해지는데, 따로 분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색의 농담을 조절하였다. 이렇듯 펜이라는 매체가 주는 독특한 성질은 본인의 작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표현되어진다.

본인의 작업에서 펜이 주는 독특한 매체의 사용으로 인한 표현기법도 중

17) 허버드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유일주 역, 을서문화사, 1982. p.74

요한 부분이지만, 본인이 펜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펜이라는 매체가 주는 특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펜을 사용하게 된 출발점은 본인의 감정적 측면과 연결이 된다. 어느 사건을 계기로 본인은 많은 기억들을 회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은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분노를 느꼈고, 그 대상을 파괴시키고 싶은 욕구로 파괴적이고 자학적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더욱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러한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본인은 무엇이라도 해야지만 본인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펜을 집어 들어 벽에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긁고, 찍으며 드로잉을 해나갔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정들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본인은 감정을 바로 표출할 수 있는 매체인 펜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 펜은 물감 등의 안료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략되게 된다. 즉, 펜은 손에 쥐어진 순간부터 움직이며 이미지를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펜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분노를 느끼고 주체하기 힘든 심리적 고통을 즉각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이렇듯 펜이라는 매체는 본인의 내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매개체로써 내면의 심리를 조형적으로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

4) 반복적 행위를 통한 내면치유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행적을 기억하고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자아

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다시 말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집단적인 기억이 한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적 토대를 이룬다면, 개인의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에 토대가 된다. 앞 장에서 언급 했듯이 인간의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도 유년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잠재의식에 남아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이러한 외상으로써의 특수한 기억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반복강박(repetition compulsion)’을 증상으로 들 수 있다. ‘반복강박’은 고통스러운 심적 경험을 반복하는 증상으로 내재된 욕망과 기억 속 트라우마를 발생시킨 사건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인 역시 외상적 기억들이 순서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떠올라 손상된 감정을 반복적으로 회상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본인의 작업에서 반복적 선긋기의 행위로 표출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반복적 행위는 되풀이되는 고통스러운 기억과 대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반복이라는 행위 자체는 기억을 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복적 행위로 본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적 자아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외상적 기억으로 발생된 불안과 공포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본인에게 있어서 반복적 선긋기의 행위는 내면의 불안과 공포의 감정 표출이며, 동시에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기저로서 작품에 반영된다. 다시 말해 되풀이 되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표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측면을 작품으로 재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반복적 선긋기의 행위를 통해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답을 스스로 얻으며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억압된 내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과거의 두려움과 공포 불

안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며, 잠재의식에 내재되어있는 기억을 표출함으로써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 받고자 함에 있다. 반복적 선긋기의 행위를 통해 불안감정을 다스리고 안정화되는 과정이 본인에게 있어 치유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3. 작품 분석



火宅街(화택가), 72.7×90.9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작품 1]

작품제목 : 火宅街(화택가)

작품크기 : 72.7×90.9 cm

작품재료 : paint maker on canvas

작품년도 : 2013

이 작품은 불타는 집을 뜻하며, 집은 본인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집이라는 장소는 본인에게 두려움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중 하나로 부정적인 사건이나 음모가 발생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이 장소는 과거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남겨진 흔적은 기억을 자극시켜 과거의 기억과 감정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불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면서 확장하는 공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작품에서는 분노와 파괴의 이미지인 것이다. 본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매개체인 집과 이로 인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분노와 파괴를 의미하는 불을 함께 표현하였다.



火宅街, 91×116.8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작품 2]

작품제목 : 火宅街(화택가)

작품크기 : 91×116.8 cm

작품재료 : permanent maker on canvas

작품년도 : 2013

이 작품에 나타나는 집의 형태는 불타오르는 화염과 함께 까마귀의 이미지와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집이라는 공간이 안식처의 개념이 아닌 유년시절의 부정적인 기억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표현하였으며, 문 밖으로 나타난 까마귀는 정확한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체불명의 위협적인 요소로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배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붉은색의 불의 이미지는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거부하고 싶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타오르는 불길은 억압된 욕망의 분출로서 상징화 되었다.



火林(화림), 107×400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작품3]

작품제목: 火林(화림)

작품크기: 107×400 cm

작품재료: permanent maker on canvas

작품연도: 2013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자연물의 형상은 나무와 숲의 대지의 공간과 유기적인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은 본인이 성장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자연의 표상으로 순수한 감성의 매개물이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동물은 자연물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써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며, 유기적인 세계가 갖는 동물의 순수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숲의 이미지에서 표현된 나무는 메마른 느낌으로 죽어가는 고목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양상한 나뭇가지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슴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불타는 숲을 표현한 것으로써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무기력한 심리적 상황에 잠식당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火焰, 60.6×72.7cm, permanent marker on canvas, 2013

[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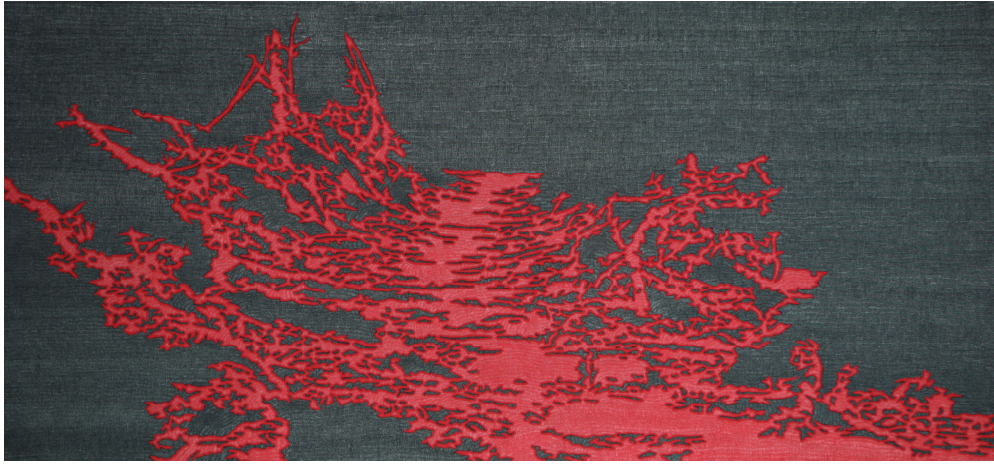
작품제목 : 火焰(화염)

작품크기 : 60.6×72.7 cm

작품재료 : permanent maker on canvas

작품연도 : 2013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숲의 이미지는 내면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불길에 휩싸여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진다. 또한 [작품 3]에서와는 다르게 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형상이이며, 아직 불길이 퍼지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 또한 화염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나무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반복적으로 회상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써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불길은 이러한 회상에서 오는 내면의 불안과 공포의 감정에 침차 잠식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陰路(음로), 70×150cm, permanent maker on canvas, 2013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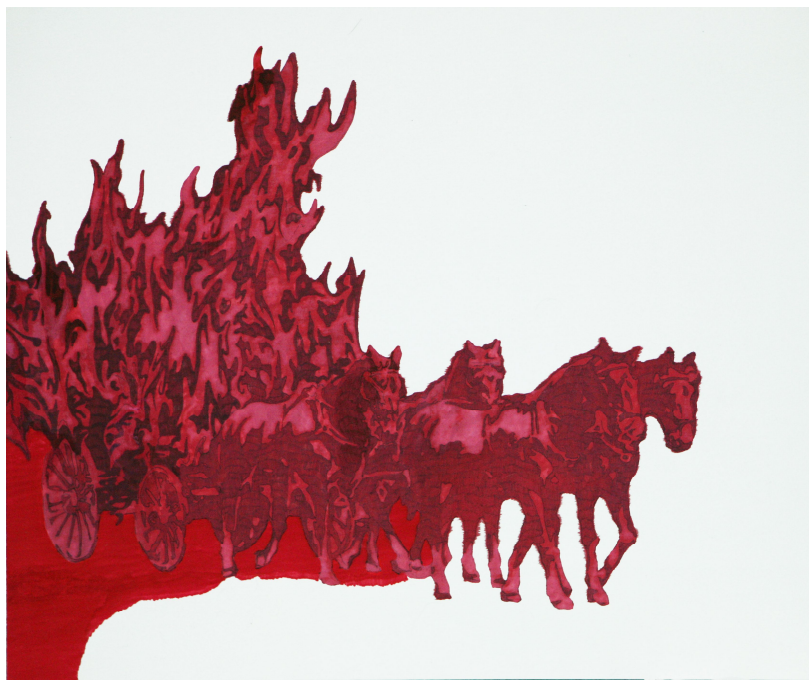
작품제목 : 陰路(음로)

작품크기 : 70×150 cm

작품재료 : permanent maker on canvas

작품연도 : 2013

이 작품은 숲을 걷다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며 느껴진 감정을 끝이 막힌 단절된 길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길이 의미하는 것은 본인의 내면의 감정들을 떠올리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인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한 내면의 불안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생각을 단절되어 있는 길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세 개의 시리즈로 구성되는데, 길의 표현과 어두운 배경은 본인의 작업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복적인 선긋기의 행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본인이 즉각적인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적갈등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얻기 위한 심리기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旅程(여정), 60.6×72.7cm, permanent marker on canvas, 2013

[작품 6]

작품제목 : 旅程(여정)

작품크기 : 60.6×72.7 cm

작품재료 : permanent maker on canvas

작품연도 : 2013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의 이미지는 외상적 기억들을 짊어지고 가는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수레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의미하며, 불에 타고 있는 수레는 이러한 기억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불에 타고 있는 수레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들은 놀라거나 몸부림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데, 이것은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외상적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旅程(여정), 72.7×90.9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작품 7]

작품제목 : 旅程(여정)

작품크기 : 72.7×90.9 cm

작품재료 : paint maker on canvas

작품연도 : 2013

이 작품들은 연작으로 [작품 6]에서 표현한 수레와 말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점은 불에 타고 있는 수레의 색채가 금색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으며 말의 형상에서도 나타난다. 본인의 작업에서 색채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의 금색의 색채는 긍정적인 의미로써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이 완화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작품에서 금색의 사용은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적갈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치유되고 안정화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旅程(여정), 72.7×90.9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작품 8]

작품제목 : 旅程(여정)

작품크기 : 72.7×90.9 cm

작품재료 : paint maker on canvas

작품연도 : 2013

이 작품에서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말은 [작품6]과 [작품7]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의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표현되는 것이며, 불에 타고 있는 수레가 아니라 꽃의 이미지로 표현된 것은 불안과 공포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변화되고 치유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대면하고 이해함으로써 내적갈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門(문), 72.7×60.6cm, paint maker on canvas, 2013

[작품 9]

작품제목 : 門(문)

작품크기 : 72.7×60.6 cm

작품재료 : paint maker on canvas

작품연도 : 2013

이 작품은 꽃으로 둘러싸인 문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문은 실내와 외부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에서 열려있는 문을 표현함으로써 내부와 외부공간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인간 삶의 정신적 사고와 관념을 상징적으로 형상화 시킨 것이다. 즉 열려있는 문은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로부터 발생된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살아감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문을 둘러싸고 있는 꽃의 이미지는 [작품 8]에와 같은 의미로써 내면이 치유화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본인은 이 작품을 통해 유년기의 외상적 기억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분노 등의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제시를 표현한 것이다.

Ⅲ. 결 론

예술가는 인간의 삶에 있어 말이나 문자로 표현해내기 힘든 무의식의 심상을 상징적으로 표출하고 창조해 냄으로써 인간의 경험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간다. 시각언어로서 표출된 상징은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보여주기 보다는 추상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표출되기 어려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무의식적인 정신의 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식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무의식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유년기에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무의식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아 트라우마로 발현되기도 한다. 예술가들은 유전적 요인, 과거의 경험, 처한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개별성과 특수성을 지닌 존재이며,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구체화시키는 그 나름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본인은 이러한 연관 요소 중에서 예술가들이 유년시절의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를 작품의 주제나 동인으로 다루어 손상된 감정을 창작활동을 통해 승화시키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인 역시 유년시절에 겪었던 사건과 기억들의 단상이 트라우마로 발전되었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 심한 내적갈등과 분노, 불안, 공포 등의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작업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유년시절의 트라우마를 작품의 동기나 주제로 다루는 작가들을 살펴봄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작품창작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키고 치유화 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 또한 작업과정을 통해 되풀이 되는 외상적 기억들

과 마주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내적갈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을 창작활동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이 완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은 유년기의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로부터 발생된 불안과 공포의 심리를 표현하는 상징적 이미지들로써 본인에게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 혹은 어떤 특정한 개인적 사건과 연루되어 외상적 기억을 야기 시키고 그 상황의 분위기가 스며든 사물들 혹은 분위기, 장소 등이다. 그 대상들은 그 자체만으로 불안을 함의하고, 야기하는 존재로 본인의 작품에서 상징화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또한 불안과 공포의 감정들을 색채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는 내면의 심리를 작품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제작과정에서 사용되는 매체인 펜은 본인의 즉각적인 감정표출의 매개체로 사용되며, 기억에 내재된 심리적 표상이 시각화 되는 과정은 반복적인 선긋기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본인의 작업과정은 불안과 공포의 심리를 인식하게 하며, 겉으로는 표출하기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대상들과 직면하고 다루게 되면서 치유화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작업과정은 자연스럽게 불안을 다스리는 자기 치유의 행위로서 확장되었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유년시절의 외상적 기억인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된 불안과 공포의 감정과 대면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탐색하면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기 위한 흔적들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 김언정, 「미술사와 근현대」, 성신여대 출판부, 2003
- 김덕택, 송종율, 이선아, 전현춘 공동 저, 「색채학」, 일진사, 2007
- 이창재, 「프로이트와의 대화」, 민음사, 2003
- 유로 현대미술 연구회 지음, 「현대미술 속으로」, 예경, 2002
- 정명화, 「정서와 교육」, 학지사, 2005

<국내 번역본>

- 길라 발라스, 「현대미술과 색채」, 한택수 옮김, 궁리, 2002
-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역, 푸른 숲, 1997
- 리처드 윌하임, 「프로이트」, 이종인 역, 시공사, 1999
- 미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용어사전」, 이재훈 외 옮김,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2
- 볼프 하르트 행크만, 「미학사전」, 김수진역, 도서출판 애경, 1999
- 잉그리트 리델,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정여주 역, 학지사, 2000

-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예술미학 분석」, 김종영 역, 글벗사, 1995
- 지그문트 프로이트,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한우 역, 열린책들, 1998
- 칼 융, 「이미지의 상징」, 송태현 역, 라이트하우스, 2007
- 허버드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유일주 역, 을서문화사, 1982

<학위논문>

- 김애림, <야요이 쿠사마에 있어서 자기소멸 이미지의 해석>,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정지아, <트라우마와 자기치유에 관한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c image of the traumatic memory

- Centering Around My Work -

Noh, Mi J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 is method to express experience and memory of artists. An artwork is expressed with intrinsic method and language through inner consciousness of artists. Artist makes their own works more detailed & individualized with their inner consciousness. Singularity of their works is increased if their work reflects their thought and it is related to past experience. These experiences have good or bad effect to artist's inner consciousness. A distressing event and memory at tender age lives for long in memory and end up becoming a trauma. Famous psychologist Sigmund Freud used it first for time as a type of damage to human psyche. It means memory and experiences have strong

impression on individuals.

I focus on artists express their trauma into their work, to build the world of their artworks and overcome their trauma. I also have trauma from some experiences at tender age. I reflect the emotional shock, anxiety and fear into my works.

Important parts of my work are expression of my emotional shocks, anxieties and inner fear. I have tried to express my anxiety in consciousness to composition & color in my works. These traumatic events are portrayed more intensely through drawing a line. I feel it makes my anxiety and fear dispelled. Therefore drawing a line is my effort to get rid of anxiety, fear and heal my wounded emotion.

This thesis states to what we can put the meaning to artwork, it is method to get over the trauma. I look into how to draw inner anxiety and fear into artworks. I find direction to my artwork on the base of this.